카페 공지사항 및 랩 위드 소식 >

[토론자 참석] 창업특별도 충북 정책포럼, 기술사업화 현장을 말하러 갑니다.

기술사업화 랩 위드
2026.10.02. 16:36 조회 7

댓글 0 URL 복사

안녕하세요, 기술사업화 랩 위드 조남주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 달에 열리는 「창업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일시: 2026년 10월 26일(월) 14:00~16:00
장소: 충북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최: 충북정책개발센터 / 공동주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 후원: 충청북도

초대를 받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십여 년 동안 현장에서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정책이 닿지 못하는 곳, 지원이 끊기는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역혁신을 창업으로, 창업인재를 충북으로"입니다.
문장은 짧지만 뜻은 큽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려면 일할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터전을 만드는 힘이 창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럼은 두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1부는 주제발표입니다.
세 분이 발표하십니다.
지역 산업의 강점을 기술창업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창업투자 기반
청년과 혁신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창업생태계

2부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입니다.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신 김학도 님이 좌장을 맡으십니다.

토론자는 모두 여섯 명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지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연구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신 분들과 제가 함께합니다. 정책, 연구, 투자, 현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저는 그중 기술사업화 현장을 맡았습니다.

토론자로서 제가 전하려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이 사업이 되는 길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시장 검증과 사업 계획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역의 연구 성과가 지역의 창업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곳과 사업을 키우는 곳이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창업인재가 충북에 머물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는 좋은 말보다 좋은 기회를 보고 움직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제안을 가져가겠습니다. 정책은 큰 그림을 그리고, 현장은 작은 디테일에서 막힙니다.

두 가지가 만나야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그 만남을 돕는 토론자가 되고 싶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 지역 혁신에 마음을 두신 분, 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만들고 싶은 분께 이 포럼을 권합니다.
현장에서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포럼이 끝나면 토론에서 오간 이야기를 정리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 주신 주최 측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술사업화 랩 위드 대표이사 조남주

클린봇

기술사업화 랩 위드

댓글을 남겨보세요

등록